

습 기 찬 꽃 밭 . . .

박은화 현대춤

1990.11.26(월)19: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박 은 화

한국현대춤협회 이사
중앙대학교 무용과 강사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
현대무용단 “푸름” 회장

학력 및 경력

1982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1985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1989~1990 전, 부산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강사역임
1981 무용한국사학회 신인콩쿨수상
1983 동아일보사주최 동아콩쿨은상
1985 Doris Humphrey의 기법원리에 관한 고찰
(Fall & Recovery中心) 논문발표
주요작품
이브의 열매 (1985), 달 (1988), 노인과 고독 (1989)
슬기찬 꽃밭 (1990), 바다가장자리 (1990)

1981 제 3 회 대한민국무용제 참가
1982 제 1 회 현대무용제 참가
1982 제 4 회 대한민국무용제 참가
1982 국제문화회 초청공연 참가
1983 제 2 회 현대무용제 참가
1983 “관” 소극장 개관초청공연
1983 한·일교류 무용제 참가
1985 제 2 회 거리의 춤 야외공연 (이정희 무용단)
1985 박은화의 현대춤 공연 (안무, 출연)
1988 호암아트홀 기획공연 (이정희 현대춤)

1988 현대예술극장 기획공연 (박은화의 춤)
1989 Open Modern Dance 참가
1989 현대무용단 “푸름” 창단공연 (안무·출연)
1989 과천 현대미술관 기획공연 참가
1990 크리스찬아카데미 25주년 기념공연 참가
1990 현대무용단 “푸름” 두번째공연 (안무·출연)
1990 '90 부산여름무용축제 공연 (안무·출연)
1990 청소년을 위한 여름무용캠프 (안무)
(부산 해운대 야외공연)
1990 과천 현대미술관 기획공연 참가 (안무·출연)



박은화의 작품세계

나는 박은화를 대학에서 대학원 졸업에 이르기까지 6년동안 지켜보았지만은 어찌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것 없이 차분한 성품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여성미를 갖춘 무용가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 우리 대학을 비롯하여 몇몇 학교에 출강하면서 현대무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현대무용단 「푸름」 대표로 있으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첫번째 작품은 「달」이었고, 둘째 작품은 「노인과 고독」, 세째 작품은 「습기찬 꽃밭」이었으며 그후 「바다가장자리」, 「염」 등의 작품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작품세계이다. 가령 「달」에서는 여인의 마음을 달에 비유하며 또한 달의 마음을 여인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노인과 고독」이라는 작품에서는 곱고 예쁜 여인들이 노인이 되어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준 할머니의 동심어린 묘사는 드라마틱하다.

이밖에 「습기찬 꽃밭」은 인신매매를 고발한 사회성있는 작품으로 박은화가 내놓은 제목에서와 같이 끈적한 여성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춤을 볼 수가 있다. 「바다가장자리」라는 작품은 우화적이고 동화적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또한 「염」에서는 한국여인의 미적 춤사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박은화의 작품은 한국여인을 배경으로 깔고 다양하게 그 상을 묘사함으로써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은화의 무용을 보고 있으면 과장과 호화스러움이 없으며 소박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나름대로 작품을 재미있게 끌고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동화시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부산공연에서는 이때까지의 작품등을 모아 재창조하여 보여준다면 기쁘기가 한이 없다. 성공적인 공연이 되기를 바란다.

박은화의 부산공연에 부쳐

언제나 변함없이 춤의 자리에 서서
연습하며 춤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저의 제자 박은화의 부산공연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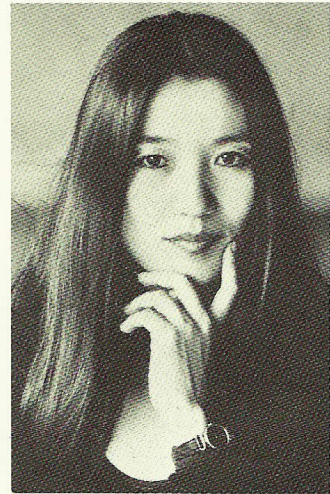
그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젊은 무용가로서 안무가로서
그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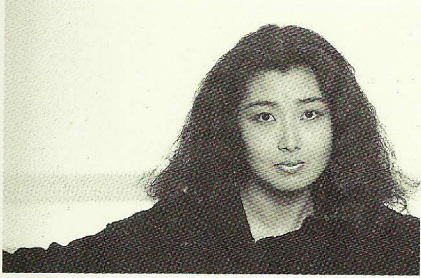
그의 고운 마음씨와 진실된 삶의 모습이
곧 그의 춤 작품속에 반영되어
춤이 주고 있는 진실의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간을 오르내리며
춤에 받치고 있는 그의 정열이
앞으로도 그의 춤 세계를 더욱 깊게 해줄것입니다.

중대무용학과 동문그룹인 현대무용단 「푸름」을 대표하면서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박은화에게
그리고 함께 땀흘리며 춤추고 있는 단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부산공연이 성공적으로
마치기 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중앙대학교 무용학과장 이 정 희





감사드리는 마음

11월의 부산 바닷바람은 제 추억의 옷깃을 따스하게 합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까지 부산에서 춤을 추며 배웠습니다. 연습을 끝낸후 땀이 식기까지 나의 꿈은 땀흘린만큼 자꾸 커져만 갔었죠. 부산을 떠난지 어느덧 10여년이 넘어 이제 돌아와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어 무척 가슴 설래며 이 공연에 애정을 정성껏 담아 보려합니다.

무대를 준비할때 마다 춤이 갖는 아름다움과 순수한 매력을 새로이 공감하며 부족함이 많을 수록 경험하는 기쁨 또한 큰것도 더불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더 잘 가꾸어 씨뿌리고, 열매거둘 수 있는 즐거움을 창조하는 무용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채찍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연이 있기까지 이정희 교수님을 비롯하여 저를 사랑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가족 친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또 서울에서 저의 부산공연을 위해 땀흘려준 사랑하는 후배들께 애정을 표하고 싶습니다.

안무자 박 은 화